

##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sup>1)</sup>

(The Role of Woman for the Effective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김진섭 목사



- 백석대 대학원 신학부총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서론

유대인 남성들이 ‘샤하리트’(Shaharit)라 부르는 매일 ‘아침 기도’ 때마다 3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첫째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둘째로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셋째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2)</sup>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군중의 수를 헤아릴 때도 “여자와

1) 본 논고는 예비역 대령으로서 33년 군선교 현장 경험을 기초로 백석대 신대원에서 “군선교 개론” 강의를 매학기 담당하면서, 동시에 대대급 백마기드온 진중교회의 양육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김창제 목사에게 크게 도움을 입었음을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아이 외에”(마 14:21, 15:38)라는 표현이 드러내듯이 여자는 계산에 고려되지도 않았으며, 민수기에 나타난 인구조사(1장, 26장)도 어디까지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에만 그 관심이 있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여성의 존재와 지위,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이 논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이지만, 대체적으로 남성 위주의 봉건적 사회에서 여자의 인식은 단순히 남성을 위한 존재로서, 역할이 있다 해도 남성을 보조하는 정도로, 심지어는 단지 남성의 성적 대상 이상으로는 인식하지 못한 경향마저도 상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 리더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성경에도 적지 않은 여성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기록이 있고,<sup>3)</sup> 특히 사사시대에는 민족의 사환이 걸린 문제를 짊어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훌륭한 ‘여선지 사사’ 드보라(삿 4:4-5:31)와 그녀의 조력자 야엘(삿 4:17-24)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상에도 여성의 이름(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밧세바])이 비록 소수이지만 결코 배제되지 않고 있음

2) 참조. 히브리어로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멜레크 하올람 쉔로 아사니 잇샤”(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당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을 송축합니다). 랍비 Judah의 설명에 따르면 “여자들은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조, Rabbi Hayim H. Donin, *To Pray as a Jew: A Guide to the Prayer Book and the Synagogue Service* (San Francisco: Basic Books, 1980), p. 194. 신약은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는 선포로 유대인 남성의 3대 감사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3) 신구약성경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총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참조. 신약 노장학자 Donald Guthrie의 지도하에 학위 논문인 Mary J. Evans, *Woman in the Bible: An Overview of All the Crucial Passages on Women's Roles* (Carlisle: Paternoster, 1983); Sue and Larry Richards, *Every woman in the Bible* (Nashville: Thomas Nelson, 1995). 가정에서의 성경적인 여성의 역할을 다룬 Nancy L. DeMoss ed., *Biblical Womanhood in the Home* (Wheaton: Crossway Books, 2002);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의 목회 리더십을 15명의 학자들이 다룬 Wayne Grudem and Dennis Rainey eds., *Pastoral Leadership for Manhood and Womanhood* (Wheaton: Crossway Books, 2002) 및 가정과 교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다루는 학술지로서 1988년에 시작된 *Journal for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를 보라.

은 그 당시의 여성이 처한 상황과 이들에 대한 사회 통념으로 볼 때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초기 교회에도 여성들이 ‘성경부인’, ‘전도부인’으로서 선교를 주도하는 등 한국 교회 부흥과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사실도 적지 않다.<sup>4)</sup>

오늘날 이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고 지위도 크게 향상되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의 전통 사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호주제까지 폐지되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크고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전형적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군대사회에서도 시대의 변화와 군의 미래 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여성의 역할 및 그 지위와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의 선교사역 현장에도 여성 사역자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한 대세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21세기 우리 시대에 복음의 황금어장인 군선교 현장에 여성 사역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찰해 봄은 많은 선교적 장애를 직면하고 있는 군선교를 활성화시키는 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1. 군대에서의 여성 역할에 대한 이해

격렬하고도 거친 삶의 현장, 그것도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해

4) 김희자, “한국 여성교역자의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 《기독교교육정보》 12집 (2005년): 280.

야 하는 군대에서 여성이 발붙일 여지를 찾기란 대단히 어려웠다. 현대의 기술공학의 발달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 혁명적으로 바뀌기 이전에는 여성을 군인으로 모집하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남성은 전쟁을 치르고 여성은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sup>5)</sup> 그래서 남성은 가정을 돌보는 여성을 위해 싸울 뿐이요, 여성을 대상으로 싸우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sup>6)</sup> 군대란 여성의 역할이 철저히 배제된 사회였고,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성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1854년 크림미아 전쟁 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같은 여성 간호사들이 전장에서 담당한 일은 오늘날 여성이 군대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을 해내고 있는 것 이상으로서, 당시에도 획기적인 일이었다.<sup>7)</sup>

그럼에도 여성이 군대라는 직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사항은 여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것들이 여성 고유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생리적 소수라는 신분적, 전통적으로 인식된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별적 문제 등의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중에서 특별히 여성이 고통받는 것은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였다. 여성은 육아를 위한 시간의 제한과 불비한 환경, 출산을 위한 장시간의 업무공백, 육아와 관련한 빈번한 근무지 이탈과 일의 능률 저하로 오는

5) 참조. 신 24: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 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민 1:3, 26:2,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

6) 도널드 해들리·제럴드 리처즈, 《21세기를 위한 군종교역론》, 김영철 역(서울: 도서출판 아침, 2001), p. 191.

7) Ibid.

적지 않은 부담감을 겪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업무에 대한 평가, 급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성적 차별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남성들 역시 여성의 이런 상황들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병존하는 것 같다.<sup>8)</sup> 여성의 본질적 업무 능률 저하가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남성들이 더 많은 업무를 배당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과, 앞서 논한 대로 출산, 육아와 관련한 문제들로 인한 업무 공백을 남성들이 짊어져야 하면서도 급여를 포함한 반대급부 부분에는 구분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여성이 짊어지고 있는 출산과 육아문제는 오히려 사회가 부담할 부분이라는 측면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고, 특히 출산율의 현저한 감소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여성의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군대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앞서 지적한 대로 공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두뇌의 가치는 증대되는 반면, 근육의 가치는 감소되고 있고, 사회 발전도 빠르게 여성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왔다. “네 엄마가 군화를 신었네!”라는 표현이 육설로 사용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간 지 오랜 일이다.<sup>9)</sup> 이제는 미군의 경우 22만 명 정도(전체의 11%에 해당), 한국군의 경우도 여군 장교와 부사

8) 성차별과 역차별의 문제는 신체적, 생리적, 성향적(성별) 차이로 남성과 대등한 경쟁을 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예: 근력을 요구하는 일-이는 야전 활동에서는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행군 시 남성에 비해 보폭이 작음, 야간 당직 및 경계근무 배당시의 차별, 야외 훈련 시 여러 분야에서의 남성 대비 비효율성, 특정 분야에서의 숙련 정도 등에 대해 여성으로서 직업 자체, 직책 배당, 급여와 승진 등에서의 피해의식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대로 남성은 실제 더 많은 일, 더 힘든 일, 더 많은 근무시간을 배당받지만 보수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역차별적 불만(그래서 일부 지휘관들이 휘하에 여군이 보직되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사례도 적지 않음)이 존재하기도 한다.

9) Ibid, p. 192.

관 5천여 명(전체의 3%의 수준-계속 그 비율이 증가될 계획임)이 직업군인으로 군대에 종사하고 있다.<sup>10)</sup>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6·25동란 시 조국 수호의 길에 여성들이 뛰어들어,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군대의 한 부분을 점유해 왔고, 그 이후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 증대, 지위 향상과 발맞추어 여군이라는 독자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최근 들어 남자의 성역처럼 여겨졌던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여군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어 정규 사관학교 출신 여군 장교가 배출되고 있으며, 급기야 군인 계급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장군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소 기피하는 정서와 함께 배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남자 군인 못지않게 군대 전 영역에서 남성 군인과 대등한 경쟁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의 역할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 군인의 전체 구성 비율의 증가, 군에 대한 기여도 향상의 현상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선교 현장 역시 초기부터 남성 중심의 군종 목사에 의해, 그리고 민간 목사들에 의해 선교 활동이 이루어져 옴으로써 여성의 역할은 거의 배제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무명의 여성 사역자들이 오래 전부터 전방 지역에 군목이 없는 진중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며 장병들과 호흡을 함께해 온 사례는 드물지 않았다.

그 이후 군목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민간 사역자의 역할 증대 및 인원이 증가됨과 함께, 자연스럽게 여성 민간 목회자들이 군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들의 사역 현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군선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여군의 현 수준 및 발전 추세는 후론할 ‘군대 내 여성의 현주소’와 ‘군선교에서의 여성 사역자의 실상’을 참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여성 사역자의 역할 증대가 단지 여성의 위상과 사회적 진출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군선교 참여 증대라는 평이한 인식을 넘어, 오늘의 시점에서 군선교의 어려움과 현장 사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을 고려할 때, 여성 사역자의 역할과 참여가 담보 상태의 선교 상황을 타개하고 선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이며 효율적인 측면이 지대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 2. 군선교 사역 개요

### 1) 사역의 목적, 특성, 범위, 내용

우리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사고방식, 행동양태 등 삶의 패턴이 근본적으로 과거로부터 변화되는 소위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사회 제도나 법, 도덕, 교훈 등 어떤 틀에 묶이기를 싫어하며, 이런 풍조가 종교(교회)를 멀리하려 하고 복음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런 현상은 젊은이에게 더욱 두드러져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군선교 사역의 목적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문이라고 여겨지는 군대를 복음화시켜 이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것이며, 군선교는 연간 30여 만 명의 새 벽이슬 같은 젊은이가 모여드는 황금어장으로서 사회와 단절되고 통제된 병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이다. 군선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든 병영에서 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 세례를 베풀고,

이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여 한국교회로 재파송하는 귀하고도 특별한 사역이라 생각된다.

### 2) 사역의 현장 상황

지금 군대 내에는 신병교육 기관을 포함하여 1004개의 진중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러나 군종목사 숫자는 260여 명으로 절대 부족한 상황이며, 더욱 줄어들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 하에서 연간 20만 명(2008년 17만여 명) 가까운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세례 받은 장병의 70% 이상이 모여 있는 대대급(군목 미배치) 이하 진중교회에서는 군목이 아닌, 위촉받은 민간 사역자에 의해 제한된 목양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제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고백을 하게 하며,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자원하여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례 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적 정체성을 인정함을 전제로 여러 가지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시킬 뿐 아니라, 군 생활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다수 인원(집단)에 대한 세례라는 현실적 특수성으로 인해 세례 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은 말할 것도 없고, 세례 후에도 진중교회의 열악한 여건으로 체계적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 3. 여성 사역의 실상과 그 필요성

#### 1)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역할 증대

##### (1) 사회 일반

우리 한국 사회도 남존여비의 유교적 사상이 지배해 왔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활동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였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선조들 중 이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 정도 이외에는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인물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여성사의 안타까운 현주소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구의 민주주의가 한반도에 이식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약자층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이들의 사회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특히 사회 각계 각층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어 왔다.<sup>11)</sup>

아직은 OECD 국가 중에는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성 인권신장이나 여성의 사회 참여 비중은 가장 빠른 속도로 신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말로만 하는 양성 평등이 아니라 사회의 현실적 모든 지표상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11) 물론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는 사회의 민주화라는 분위기에 그 이유가 있겠으나,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라는 어려운 장벽을 극복하고 개인적, 사회적 성취를 이룬 여성 선각자들의 각고의 노력이 밑받침이 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선구자들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한국 개화기 여성활동의 선구자이고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활란 박사, 최초 여성 변호사 이태영 박사, 최초 여성 국회의원 임영신, 여성으로 정당(신민당) 당수를 역임한 박순천 여사, 한국 오페라계의 큰 별 김자경 교수, 우리나라 대표적 작곡가 김소애, 한국 최초의 탁구 세계 선수권 우승자이고 여성 최초 태권선수총장을 역임한 이예리사, 최초 여성 농구 코치 및 감독 박신자, 최초 여성 영화감독 박남옥, 최초 여성 신문사(한국일보) 주필 장명수, 최초 여성 국무총리 한명숙, 최초 여성 대사 김경임, 최초 여성 대법관에 임명된 김영란,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여성 법무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최초 여성 장군이 된 양승숙, 그리고 최근 미 JPGA계를 주름잡은 박세리, 신지에 선수를 비롯한 한국 골프영자군, 어려운 때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세계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 김연아 선수 등을 들 수 있겠다.

참고로 최근 여성의 사회 참여 지표를 살펴보면,<sup>12)</sup>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2005년 50.1%에서 2007년 53.9%, 2008년 54.5%로 여성의 반 이상이 가정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그 숫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전체 공직자 점유 비율도 1995년 27.3%에서 2000년 31.5%, 2004년 35.8%로 높은 비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의 한계처럼 받아들여지던 이른바 '유리천장'<sup>13)</sup>이 사회 곳곳에서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2월 11일에는 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 대학 3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장(드루 길핀 파우스트 교수)이 임명되어, 미 동부 명문 아이비리그 사립대학교 8개 중 여성 총장이 4명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정치, 법조,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기업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고, 나아가 학업, 체육, 리더십 분야까지 남자를 능가하는 소위 '알파 걸'<sup>14)</sup>도 출현하여, 여성 파워는 갈수록 강해질 전망이다.

여성부에서 발표한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 주요 고위직 및 지도급 인사의 점유 지표로는,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이 16대에서는 16명으로 5.9%였으나 17대 국회에서는 41명으로 14.1%로 높아졌으며, 여자 교수의 비율은 2005년 16.2%에서 2010년까지 20%로 증가될 전망이고, 여 교장, 교감의 경우는 2005년 11.8%에서 2010년까지 역시 20%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12) 본 자료는 2007년 1월 여성가족부에서 보고한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추진 계획"과 2008년 3월 22일 여성부에서 보고한 "업무계획" 및 2008년 12월 24일 여성부에서 보고한 "여성정책 실천계획"에서 참고하였다.

13)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란 여성들의 고위 또는 중간 관리직 진출에 방해가 되는 무형의 장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업 등에서 입사 초기에 기회가 비교적 동등하게 주어졌으나, 아직 일정선 이상으로 오르는 데는 보이지 않는 제한, 즉 존재도적, 정서적 거부, 압력, 분위기 조성 등 장벽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하버드대 덴 칸들러 교수가 사용한 용어로서, 근래 들어 공부, 운동,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남학생을 능가하는 엘리트 소녀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 이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제약감은 커녕 남학생들보다 더 자신감 있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 '알파걸'의 등장은 곧 '알파우먼'의 증가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 파워의 향상을 이끌게 된다고 설명한다.

여성 고위직 진출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곳은 사법 분야로서, 지난 2월 21일 대법원에서 신입 판사와 예비 판사 임명장 수여식에 전체 187명 중 여성이 절반이 넘는 104명으로 여초(女超)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고시 합격자의 비율은 다음 도표와 같고, 해가 갈수록 점유 비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구 분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점유비율	32.3%	67.7%	44.6%	20.0%

이와 같은 지표들로 미루어 볼 때 이제 우리 사회는 양성 평등의 사회로 진입하였다고 생각되며, 더 이상 여성에게 남성과의 경쟁관계에서 배려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지났고, 머지않아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이던 분야에서 여성의 점유 비율이 남성을 앞지를 수 있는 상황(女超 현상)은 물론이며,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성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회로의 진입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2) 군대 내 여성의 현 주소: 여군의 변천 및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15)

### ① 여성 인력의 확대

“여성에게 강요되는 복종은 거부하나, 군인에게 주어지는 명령에는 묵숨을 걸겠다”는 분명하고도 정체성 있는 여군의 슬로건에서 보여 주듯이, 군대에서 여군의 역사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 남성 위주의 사회적 장벽인 ‘유리천장’을 극복하는 데 많은 시

15) 2009. 1. 14.부터 국방일보에 군사기획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는 김여진 기자의 “여군이 선진 강군의 미래다”의 내용과 육군 발행(2000) 《육군여군 50년 발전사》의 일부 내용을 중점 참조하였다.

간과 어려운 과정과 여성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것처럼,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여성이 조직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고 자리매김을 하는데도 적지 않은 굴곡의 역사가 있었다.

여군은 태동 과정에서부터 정식 군인이 아닌 의용군으로 출발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육군의 경우,<sup>16)</sup> 6·25동란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1일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호국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일념과, 당시 학도호국단 여자 교련 교사로 시작하여 여군이 된 김현숙<sup>17)</sup>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당시에 엘리트층에 속하는 여성들이 자원함으로써 여성 의용군이 창설되었고,<sup>18)</sup> 같은 해 10월 23일 정식 현역 군인으로 편입된 후 전쟁 중 후방 지원, 인민군을 대상으로 한 선무활동 등에서 맹활약을 펼쳐 여성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16) 해군과 공군 여군의 경우는 육군의 여군처럼 그 규모나 발전 과정이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이들 역시 육군 여군의 태동 시기와 배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군·해병대는 최초 제주도 출신 여성 의용군으로 모집되어 해군의 후방 업무(간호, 홍보, 예비서무사, 위문 활동 등)를 담당하였으나, 1955년 초기에 해체되어 오랜 공백기를 보내다가, 1999년 해군사관학교에 여생도가 들어오면서 해군·해병대 여군 시대를 다시 열었다. 공군의 경우도 최초 여자 항공 교관대로 발족하여, 육군과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 독립적인 공군 여자 항공대를 창설하여 정비, 통신, 항공 조종 등의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들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6·25전쟁 후 해체되었으며, 1993년 간호장교가 배출되고 1997년 공군사관학교 역시 여생도를 받아들임으로 공군의 여군 시대를 다시 열게 되었다.

17) 김현숙 초대 여군 병과장은 학도호국단 교사로 재직하다가 1949년 9월 학도호국단 폐지 시 예비역 중위의 신분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실에 소속되어,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며 여자 공비 전향 임무를 수행하던 중 6·25동란을 맞게 된다. 그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자 의용군 모집을 건의하여 재가를 받고, 2군 훈련소 예하에 여자 의용군 교육대를 창설하여 교육대장으로서 여자 의용군을 양성하였으며, 이들을 또한 현역으로 편입시켰다. 이후 중령의 계급으로 육군본부 여군 과장이 되었고, 1953년 여군 최초로 대령으로 진급했으며,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전기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이어 여군의 역할 증대와 확장 계획에 따라 1954년 1월 초대 여군 부장에, 1955년 여군 훈련소 소장에 각각 임명되었고, 1959년에는 여군 처장으로 대한민국 여군을 이끌었으며, 1960년 9월 30일 전역하기까지 한국 여군 탄생의 주역으로서 여군 발전에 한 획을 그은 여군 역사 자체였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18) “중대한 위란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겁한 남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처를 돌아다니며 자취를 감추고 있는……태도에 많은 우리 여군들은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 시국을 재인식하여서 국가 총력으로 최후의 평화를 획득할 때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여자의용군 모집 담화문 중, 1950년 8월 23일 부산지구 계엄사령부 《육군 여군 50년 발전사》, 육군본부, 2000. p. 85.

6·25전쟁 후 1954년에는 육군본부 인사국(인사참모부 전신) 내에 여군 부(部)로 승격되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군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 되었고, 1959년에는 각급 기관과 부서에 여군의 행정지원 업무 확대와 여군의 규모와 행정기술요원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여군 처(處)로 승격, 개편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와 육군본부 직할 부대인 여군단(여군 대령 직위)이 창설되고, 소수 행정지원병과로서의 한계와 경쟁력 제한의 한계를 일부나마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여군의 활용 분야가 육군의 전 병과적으로 확대되어 우수자원 확보와 양성 배출 등으로 끊임없이 그들의 잠재역량을 키워나가게 되면서, 대한민국 군대의 여군으로서의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여군의 이와 같은 군대 내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피나는 노력의 결과 이제는 여군이 단지 남군의 사회 속에서 온실의 화초와 같은 배려받는 존재의 수준을 벗어나, 스스로 군대의 모든 병과, 모든 제대에서 자력으로 동일 계급의 남군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차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장교 인사제도 개선 기본 계획에 의해 군 인사법이 개정되고 1990년 1월 1일부터 여군의 별도 조직으로 존재했던 여군 병과가 폐지되어 육군의 모든 병과에 통합되었고, 같은 의미에서 이듬해 1월 1일부로 여군의 상징이라 여겨졌던 여군단이 해체되고 다시 인사참모부 여군처로, 여군 담당관실로 개편되었다가, 육군 내 여군 업무만을 전담했던 이 기구는 여군이 육군 내 제 병과에서 충분히 뿌리 내리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완전 폐지되었다. 그리고 여군 훈련의 산실로 여군의 애환이 서려 있던 여군학교도 남군 과정과 통합되는 차원에서 해체됨으로써, 육군에서 여군만의 별도 기능은 시대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제는 여군의 역할이 단순한 군대 내 남성을 보좌하는 행정지원 업무 차원을 넘어, 임무수행 특성상 효율성이 불가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포

병, 기갑 등의 일부 제한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병과에서, 섬세하고 유연성이 크게 요구되는 여성적 기능 분야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남성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존 인식들을 깨고, 정책부서, 모든 제대의 지휘관과 참모업무, 각 군의 전투병과 직위(소대장 및 중대장, 전투기·헬기 조종사, 전투함 승조원뿐 아니라, 특수 분야, 심지어는 특수전 부대의 고공침투 임무 분야까지), 해외 파병 군인에까지 진출하였고<sup>19)</sup> 경쟁관계에서 남군들의 영역이 위협을 받는 수준을 넘어 대단히 높은 업무 성과를 내는 단계에 이름으로써, 여성의 역할이 어떤 분야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는 양성평등의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여성의 역할 비중 증대: 사관학교 문호 개방, 여성 장군 배출

군대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실제 군대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과 위상의 확립은 장교의 진출과 신분(계급) 구조의 제고라 할 수 있다. 군대에서 여군 장교 중 일반 장교의 경우는 여군학교 장교 후보생 교육을 통해, 간호 장교는 간호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각각 배출되어 왔다.

그러나 정규 사관학교에 여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성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목소리로 인해 금녀(禁女) 지대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사관학교에 그 규정을 허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오다가, 이 문제가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 향상의 바로미터로 인식되는 중대한 사안이 되어 여론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난 1997년 드디어 공군에서 창군 최초로 공군사관학교 여성 사관생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고, 이어 육군에서는 1998년에, 해군에서는

19) 2006년도 해외에 파병된 여군은 총 60여 명으로 서부 사하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자이툰 부대 등에서 맡은 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6 국방백서》, p. 122, “정에 국방인력의 확보와 관리”.

1999년에 여성 사관생도를 각각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각 사관학교는 생도 정원의 10%를 여성으로 할당받아 비로소 여성 사관생도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아직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이들 사관학교 출신 여군 장교들이 장래 대한민국 여군을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태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여군의 계급은 그들이 군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군 고위직 수행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온 이유 등으로 최고 계급이 대령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여군의 역할이 증대되고 여군의 규모도 앞에서 제시한 바대로 대폭 확대됨으로 인해, 그리고 여성의 권위 신장에 대한 여론이 사회적으로 비등해지면서 여성 장군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여성 장군은 일반 장교(전투병과) 출신 중에서 배출되는 것이 통례이겠으나, 계급 인력구조, 당시 운용되고 있던 ‘간호사관학교 교장 직위 장군 활용’ 등의 조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간호장교 출신 중에서 지난 2002년 1월 1일 양승숙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되어 간호사관학교장이 되었고, 이어 간호사관학교장 직위가 준장으로 편제됨에 따라 2003년에는 이재순 준장이, 2005년에는 윤종필 준장이, 2007년에는 박순화 준장이 진급과 함께 간호사관학교장에 보직되는 등 4회에 걸쳐 여성 장군을 배출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앞으로도 여군의 규모 확장과 역할 제고에 따라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아직까지 여군의 역할이 미미한 해군, 공군의 일부 여군 발전 업무와 사회의 여성 발전 추세인 양성 평등, 모성보호정책과 연계하여 여군들의 군대생활과 가정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목적 등으로 2006년 국방부 내에 여성정책팀(2008년, 여성정책과로 개편)만이 잔존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이런 여군의 역할과 기능, 규모 확대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sup>20)</sup> 《2008

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국방부에서도 정부와 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여성 정책을 적극 구현하려는 노력을 여성정책팀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다. 그 국방백서의 자료에 의하면, 국방여성 인력은 여성 공무원이 공무원 정원 대비 32%에 이르고, 여성 군무원은 군무원 정원 대비 약 16.5%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07년 국방여성 공무원 군무원 인력 현황

구 분	계	4-5급	6-7급	8급 이하
계	4,454	162	1,070	3,222
공 무 원	303	26	110	187
군 무 원	4,151	136	960	3,055

[단위: 명]

또한 여군 인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2007년 현재 장교와 부사관 5,400여 명을 2020년까지 11,600여 명으로 증원함으로써, 간부 정원 대비, 장교는 3.1%에서 7%로, 부사관은 2.2%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연도별 여군 인력 확대 계획(안)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2008년	5,437	3,969	542	928
2010년	6,340	4,459	719	1,162
2015년	8,853	5,983	1,308	1,562
2020년	11,606	7,790	1,938	1,878

[단위: 명]

20) 《2008년 국방백서》, pp. 135-136 참조.



이와 병행하여 각 군 사관학교 모집 정원의 10%를 할당하여 여생도를 모집하고 있으며, 육군의 여군 사관(간부사관), 그리고 해·공군의 여군 학사 장교를 확대 선발하고 있고, 여군 부사관 역시 점차 증원할 예정이어서,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여군 인력이 지금의 약 2.8배로 대폭 증원될 예정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군 인력을 정책부서뿐 아니라, 군대의 모든 부서에 확대 활용할 계획이며, 상기와 같은 모든 계획을 법제화하여 실천할 계획이다.<sup>21)</sup> 아울러 정부의 《여성 발전 기본법》(2002년 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분석도구인 “성별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각 군에도 이 제도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③ 여성 군목 배출 요구 증대

군대의 모든 분야(병과, 기능)에 이제 여성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 이를 우리 사회뿐 아니라 군대에서의 양성 평등의 실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방부 방침에도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군인은 남녀 불문하고 모든 직위에 배치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에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있다.<sup>22)</sup> 그럼에도 군종병과에서만 여성 군종 장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1) 법률 제8097호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 확대)–《2006 국방백서》 부록 6에 포함. 1) 국방부장관은 여성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2) 여군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 각 군별, 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2006 국방백서》, p. 122.

물론 군에서도 지상근접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연대급 이하 부대, 특수 작전이나 장거리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직무와 관련하여 여군이 수행하기에 신체 요구조건이나 효율성 면에서 여군에게 부적절한 부대와 직위에 한해서는 여군 배치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다.<sup>23)</sup> 그러나 군종병과의 경우에는 특히 여군 군종목사를 받아들이는데, 앞에서 제시한 제한 사항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현재 건전한 종교로 인정되고 있는 어느 종단에서든 여성 성직자가 없는 곳이 없고, 군대에서의 어떤 분야에도 여성이 진출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동안 군종병과와 함께 유일하게 여성 장교를 받아들이지 않던 법무 병과에서도 금년에 드디어 사시 48회에 합격한 김소레 씨가 법무 74기로 육군 대위로 임관하였다.

뿐만 아니다. 직책 수행과 업무의 효율성, 성과에 관한 문제에서도 결코 군종병과는 여성에게 개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대다수 젊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종 활동(특히 기독교 목회 활동)에서는 여성 목회자의 배출은 불가피한 것 같다. 여성 목회자가 군의 사역(군선교)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이유는 뒤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다만, 군종 장교가 여성에게 개방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군대 내 종파별 견해의 일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는 기독교 내부의 문제로서(가장 결정적 이유일 것이다) 교단별 여성 목회자 배출과 관련하여 일부 교단에서 아직 여성 목사 안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군목 파송 11개 교단에서 여성 군종 목사를 뽑을 때 교단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군종 장교(특히 군목)

23) Ibid.

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군중 장교를 추가로 할당할 때 이해관계 등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여성 군중 장교 초임자는 역시 하위계급으로서 젊은 여성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 신자로 구성된 진중교회에서 영적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등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기독교 일부 교단에서도 여성 목사 안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시기에 맞춰서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기 내에 여성 군중 장교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여성 군중 장교 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한사항(상기 제시 내용을 포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여성 군중 부서관 제도 시행

군대 내에 여성 군중 장교 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의 하나로서 또는 일차적 개선 조치로서 여성 군중 부서관 제도가 법제화되어 실행된다. 금년부터 육군에서 최초로 모집하였으며, 이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군중 부서관으로 임관할 경우, 군중목사가 있는 연대급 이상에 배치되어 비록 소수이기 때문에 당장은 상징적 의미 수준일 수도 있으나, 군중 활동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군중 행정 부서관 제도는 그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시도들이 여성 군중 장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군선교에서의 여성 사역의 장점

### (1) 여성 측면에서 남성 보다 강함

‘한국교회는 여성도의 기도로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했다고 인정되는 여성 목회자의 경우도 남성 목회자들이 주로 시도하는 목회 프로그램에 의한 목회전략보다는 기도하는 목회를 우선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 측면에서 남성 목회자들이 기도해 목숨 거는 여성 목회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뒤에 조사 결과에도 나오겠지만 여성 목회자 자신들로 여성의 강점으로 기도의 영성이 강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고 남성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남성 목회자도 기도하는 목회자는 성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거칠고 메마르고 야성이 난무한 군대의 목양 현장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일일 것이라는 의미에서 영성이 강한 여성 목회자들이 군선교 현장에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2) 여성 유일의 모성 본능 발휘

여성에게는 남성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가페적 사랑(모성에)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다. 아이를 낳은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모성본능 내지 보호본능이다. 따라서 장병들을 애뜻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품고 감싸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것이 여자의 본능이다. 사랑하며 기도할 때도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 이런 모습들이 가정과 단절된 젊은 장병들의 가슴에 전달될 때 대단한 호소력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3) 여성 특유의 섬세함, 온유함과 친화력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과 자상함으로 장병들의 부족하고 빈 부분을 채워 줄 수 있으며, 자기를 과시하거나 외형적인 행동으로 성취하려는 남성보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장점이 발휘될 수 있다. 이는 자신을 낮추어 인간을 섬겼던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목회자 상을 드러내므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고, 사랑과 부드러움을 통해 거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장병들과 만나지 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친화력을 발휘할 수 있어 목회사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군선교 현장의 목회는 일반 교회의 목회와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 일반교회 목회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이 설교라고 생각하는 남성 목회자와는 또 다른 측면의 목회 방식이 여성 목회자에게는 필요하겠다는 의미인데, 군대 환경의 특수성, 목양 대상 장병들의 구성과 그들의 정황을 고려하고, 특별히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성 목회자만이 갖고 있는 모성본능 내지 보호본능,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자상함, 그리고 겸손함을 잘 활용할 때, 군대교회의 목회사역은 설교 중심보다는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격려하고 세워 주는, 그리고 그들과 삶을 나누는 양육 방식의 목회가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이런 이유로 군선교가 여성 목회자들에게 적합한 목회가 아닌가 여겨진다.

## 4. 여성 사역자의 사역 실상

### 1) 성경에 나타난 여성 사역자의 활동 사례

본 논고의 논리적 흐름을 위하여 우리는 여기서 신구약성경에 나타난 여성 사역자에 국한하여 그 활동 사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구약에 나타난 여성 사역자

구약의 이스라엘 신정국가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은 비록 남성 위주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라도 고대 근동사회에서 유일한 특성을 가졌으니, 곧 여선지자<sup>24)</sup>(출 15:20[미리암]; 사 4:4[드보라]; 왕하 22:14[홀다<sup>25)</sup>], 사사(사 4:4[드보라]), 비록 악했지만 여왕(왕하 11:3[아달랴])이 존재하였으며,<sup>26)</sup> 고대 근동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여제사장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으니(레 22:12, ‘제사장의 딸’ 참조), 그 이유들 중에는 ① 고대 근동의 여사제는 주로 다산(多産) 제의와 종교적 창녀 기능을 가진 것이요 ② 대개 16세 경에 출가하며, 매월의 생리현상에 의한 제의적 불결과 ③ 죽은 제물들의 운반 등의 중노동에 적합하지 않으며 ④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 반드시 아론의 남자 후손들에 국한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24) 거짓 남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거짓 여선지자도 있었으나(느 6:14[노아다]; 겔 13:17[이하]), 거짓 예언을 정죄한 것이지, 여선지자 직분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요엘 2:28 이하의 민 11:29의 정신을 따라서 결국 예언 사역이 남녀노소에 구분이 없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25) 홀다 여선지자는 예레미야, 스바냐와 동시대 선지활동을 하였고, 적어도 5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요시아가 발견한 율법책에 관한 여호와의 지시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는 사실은 C. J. Vos에 따르면, “여성이 예언하는 것에 반대하는 어떤 편견이 있었다 해도,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강하게 드러낸다.” *Women in the Old Testament Worship* [Delft: Judels & Brinkman, 1968], p. 186.

26) 북 이스라엘 왕조와 대조적으로, 남 유다 왕조의 계보에는 ‘그[왕]의 모친의 이름은 A’(베헬 임모 A)라는 고정문구를 가짐은 왕정에 모친의 지도적 영향력을 시사한다(참조, 잠 31:1,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왕상 14:21, 31(르호보암[나아마]); 15:2, 10, 13(아비알[마아가]; 비교, 대하 13:1, 아비알[미가]); 대하 15:16(아사[마아가]); 왕상 22:42(여호사밧[아수바]); 왕하 8:26; 11:1(아하시야[아달랴]); 왕하 12:1(요아스[시비야]); 14:2(아마새[여호앗단]); 15:2(아사랴[여굴리아]); 15:33(요담[여루사]); 18:2(히스기야[아비]; 대조, 대하 29:1, 아비야); 21:1(므낏세[헬시바]); 21:19(아몬[므슬레렛]); 22:1(요시야[여디다]); 23:31(여호아하스[하무달]); 23:36[여호야김[스비다]); 24:8(여호야긴[느후스다]); 24:18(시드기야[하무달]).

흥미로운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구별된 특별한 지위의 ‘지혜자’ 가운데에는 종종 여성이 있었다(삿 5:28-30[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어머니의 시녀 지혜자들]; 삼하 14:2-20[드고아의 여성 지혜자]; 20:16-22[아벨의 여성 지혜자]).

구약은 따라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이중적인 면을 묘사하여, 선지자의 경우 숫자적으로 매우 적고, ‘기록 선지자’는 아무도 없으며, 제사장 역시 아무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이 리더십이나 권위에 부적절하거나 무자격자라는 어떤 암시도 없다. 오히려 여성이 일반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기는 시대와 사회에서 앞서 논한 여성 지도자가 존재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 위에 지도직을 행사함이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암시도 없다.

## (2) 신약에 나타난 여성 사역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는 100세를 넘긴 원로 여선지자(눅 2:36)로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 대해 예언하는 영광을 누렸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일곱 지도자 중의 하나인 빌립<sup>27)</sup>의 네 딸은 예언하는 여성들이었으며(행 21:8-9),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인 자매 뱌비(롬 16:1-2)는 그 교회의 사역자이다.<sup>28)</sup>

27) 행 6:1-6을 전통적으로 ‘안수집사’ 직분의 기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 본문의 어디에도 그런 암시는 없다. 행 21:8의 ‘일꾼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란 명칭에서 ‘집사’는 물론 원문에 없다. 행 6:2-3의 자격이 암시하는 것은 12사도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지도자임에 동격으로 대응하는 헬라파 지도급 7명으로 선출된 것이다.

28)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롬 13:4; 고전 3:5; 엡 3:7; 골 1:7) 혹은 ‘안수집사’(빌 1:1; 딤후 3:8, 10, 12-13)를 뜻하는 전문용어인 남성 명사 ‘디아코노스’를 사용한 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프로스타시스)가 되었음이니라’는 본문과 함께 이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사도 바울의 선교행전에 ‘동역자’(순에르고스)<sup>29)</sup>로 이름이 알려진 70명 중에 가장 탁월한 부부 사역자였던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와 에베소와 로마의 자기 집을 가정교회 처소로 내놓은 바울의 동역자였다(롬 16:3). 사도 바울의 친척인 여성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sup>30)</sup>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롬 16:7)로 소개된다.

율바의 과부 다비다(‘영양’[羚羊]이란 뜻의 아람어로서, 헬라어 ‘도르가’와 동등어임)는 여제자(마셰트리아)로서, 과부들의 속옷과 겹옷을 지어 입히며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여집사로 추정하기도 한다.

## 2) 민간 교회에서의 여성 사역자의 실상

지난 2월 미합중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설교한 목사는 미 프로테스탄트 제자회 소속 사론 와킨스 여성 목사였다. 와킨스 목사는 미국에서 비교적 성공적 목회를 하는 여성 목회자로서 프로테스탄트 교단 중에 유일하게 여성 총회장을 역임한 미국 여성 목회자 중의 한 사람이다. 현재 한국 교회 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 여성 목회자는 명확지는 않으나 한국 여성연합회의 조사(2004)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000~5,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목사 안수를 받은 여성 목회자는 감리교 307명(3.73%), 장로교 통합측에 457명(4%), 기장측 150명(6.7%), 성결교 307명(3.7%), 기하성 150명(7%), 대한성공회 9명(4%)과 그 외 일부 군소 교단 목사 약간명으로 전체 1,300여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sup>31)</sup>

29) ‘동역자’(순에르고스)란 호칭은 디모데(살전 3:2), 디도(고후 8:23), 빌레몬(몬 1:1), 마가와 누가(몬 1:24)에게도 사용되었다.

30) 로마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유명하게 여김 받는, 특출한’(에피세모스) 사역자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 유니아를 천거하고 있으며, 그녀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었던 여성이었다.

그리고 여성 목회자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2008년 5월 21일 장신대에서 주최한 “신대원 여학생의 진로 현황과 전망” 세미나 결과에 의하면, 신대원생 중 여성의 비율이 2000년 11%에서 2005년 22%로, 목회연구과정의 경우 2000년 21%였던 여성의 비율이 2005년 44%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여성 학생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백석대학교 신대원의 경우에도, 여성의 비율이 2007년 30.5%에서 2008년에는 36.0%, 2009년에는 39.9%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2)</sup> 이런 추세는 대부분의 교단도 유사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교단을 불문하고 “신학생 중 1/3은 여학생이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 목회자의 사역 실상은 어떨까?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여성 목회자의 길은 두 갈래로 그 현실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우선, 남성들의 텃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목회지를 개척하여 자타가 공인할 정도의 목회자로 우뚝 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력파의 능력 있는 목사,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는 목사들도 있고, 여성 목회자들이 건 축한 유명한 교회도 꽤 있어,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변변한 목회지조차 찾지 못하고 있거나, 개척교회를 꾸려가면서 여성이라는 사회적 장벽과 싸우느라 고군분투하며 탈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도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애당초 교회 개척과 목회는 포기하고 가정사역, 상담사역, 복지 사역 등 특수사

31) 본 내용은 종신대 김희자 교수의 “한국 여성교역자의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현황이며, 최근 “한국 독립교회연합 및 선교단체협의회”(대표: 김상복 목사)에서 상당한 여성 목사가 배출됨으로 인하여 실제로 2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32)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제공한 2007~2009년 신대원 입학 학생 성비표(2009. 3. 31)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역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자처럼 목회자로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 교회를 목양해 나가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할 뿐, 대부분은 후자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 중의 하나이고 여성 목회자가 배출되는 T 교단의 경우 신대원생의 30% 정도가 목사 안수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까지 나타났다. 이것이 오늘날 민간사역에서 여성 사역자가 직면하는 목회 상황이다.

### 3) 군선교에서의 여성 사역자의 실상

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아직 여성 군종목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260여 명 전체가 남성 군종목사로 이루어져 군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군대에서 여성 목회자를 기피하거나 사회적 분위기처럼 부정적으로 인식함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단지, 교단별 여성 목사 안수 허용 여부 문제와, 그 외 종교간의 형평성 문제 등 제도적·절차적 문제가 주된 이유일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군대에 여성 군종목사가 없는 대신, 군종목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의 진중교회에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는 민간 목회자 중에 여성 사역자가 상당 부분 진출해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33)</sup> 현재는 여성 목사 안수가 허용되지 않는 교단과, 목사 안수 전 예비 목회사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교단을 고려하여

33)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는 1004개의 진중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할 군종목사의 숫자가 대단히 부족하여(260여 명), 그 이외 교회에는 민간 목회자를 위촉하여 사역토록 하고 있다. 목회 지역이 광범위하고 일부 부침(浮沈)이 있어 그 수가 정확지는 않으나, 대략 600~700명 정도가 다양한 형태(진중교회를 완전히 맡아 온전한 목양사역을 하는 전담 사역자, 제한된 시간, 방법으로 사역을 하는 수시 사역자, 기타 협력의 형태 등으로 사역하는 사역자 등)로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그중 여성 사역자는 약 40~50명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 사역자의 참여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사 이외에 전도사, 강도사에게도 군 목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군 선교 사역에는 남성과 여성 목회자,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있는 군 종목사와 민간 목회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과 목사 안수를 아직 받지 못한 전도사나 강도사 직분을 받은 사람 등 다양한 목회자들에게 선교 사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상태이다.

## 5. 군선교를 위한 여성 사역자 역할 확대 전략

### 1) 여성사역의 최적 분야로서 군선교 사역 확대

여성 목회자(후보생)에게 군선교 사역이 민간 교회사역의 현실적 장벽과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역의 최적지로서 그들의 사역 역량과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임을 인식시키고, 그들을 군선교 사역에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 (1) 신학교 여성 졸업자를 군사역자로 활용

##### ① 신학교 여성 졸업자의 목회 현장 진출 실상과 사역 여건<sup>34)</sup>

여성 목회자로서 성공한 경우를 이야기할 때,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회자인 조이스 마이어 목사, 《대적의 문을 취하라》의 저자 신디 제이콥스 목사, 모잠비크의 고아 사역자인 하야디 베이커 목사를 자주 거론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할렐루야 아줌마로 잘 알려진 고 최자실 목사, 부스러기 사랑나눔 대표이며 국회의원인 강명순 목사, 날마다 큐티하면서 설교시

를 우는 여자로 알려진 김양재 목사, 그 외에 은총중앙교회 김록이 목사,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이정은 목사 정도 등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된 수의 목회자밖에 거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역시 여성 목회자의 경우, 여성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현장으로 나간다는 것이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매년 수천 명의 목사가 쏟아져 나오는 한국의 상황에서, 목회자 찾기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까지 표현되는 우리의 목회 현실은 모든 목회후보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는 더욱 목회자의 문이 좁고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권 속에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의식에 익숙한 사회 풍토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나가는 것, 그것도 영적으로 남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리에 선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신자들의 경우는 영적 세계와 그 사역을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심분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새 신자의 경우 여성 목회자에 대해 상당히 익숙지 않고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느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전도하여 한 가정이 교회에 나오기로 해 놓고 목사가 여자라는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이유를 물으니 “어떻게 여자 목사로부터 설교를 들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어떻게 여자에게 맡길 수 있는가?”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 일부 청년들 중에는 자신이 여성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자신의 결혼 주례만큼은 다른 교회 남성 목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나마 앞서 살핀 대로 우리 사회가 오늘날 급격히 양성 평등 의식이 자리잡혀가고 있어 지금의 정도라도 가능한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성 위주의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한, 당분간

34) 2009년 1월 9일자 국민일보 칼럼 “여성 목회현장을 찾아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은 여성 목회자의 사역에는 많은 물리적 장애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활동 경험의 부족, 전담목회사역 이전에 부교역자로서 다양한 경험의 기회 부족(대부분 부교역자 시 어린이 사역, 여성 성도들 대상의 사역, 심방 전도사역, 노약자 복지 관련 사역 등을 주로 담당) 등의 이유로, 단독목회 사역에서 시행착오가 남성보다 많을 수 있고, 때에 따라 젊은이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그들과 동화해야 하는 개척교회 사역에 여성으로서 불가피하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성 목회사역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지난 2008년 5월 21일 장로회신학대학에서 “신학대학원 여학생의 진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 1회 신학교 여학생 진로세미나는 국내에서 여성 목회자로 사역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비교적 잘 보여 주고 있다.<sup>35)</sup> 장신대 신대원이 최근 3년간 신대원(신학과) 졸업생의 진로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들의 전임 전도사 부임은 평균 16.9%로 남성(51.6%)의 1/3 수준이었는데 반해, 졸업 후 교육 전도사로 향하는 비율은 33.7%로 남성(13.7%)의 배를 넘었다. 또한 신대원 여학생 1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84.9%가 ‘한국 교회가 여성 교역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차별의식을 느끼는 부분은 ‘평신도들의 인식’ (48.2%)이었고, 부서 배치, 업무 배분, 설교 배제 등의 차별이 뒤를 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6)</sup>

35) 국민일보 동일 자료에서 발췌하였다.

36) 이런 여성 목회자의 현실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보고 내용이 있어, 핵심 위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충신대학교 김희자 교수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을 받아 403명의 여성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 형태로 연구한 “한국 여성교역자의 인적 지원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 ② 여성 사역의 최적 분야 군선교

따라서 이와 같이 뜨거운 열정과 사명의식을 갖고 배출되는 여성 사역자의 적재적소 활용은 우리 한국 교회의 장래와 선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들 잠재 역량과 사역 의지를 가진 여성 목회자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가를 한국 교회와 교단들이 깊이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물론 이들을 활용할 분야는 해외 선교를 포함하여 무궁무진할 수도 있다.

한국 교회 교인 남녀 구성비는 여자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 목회자의 비율은 교단 모두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여성 교역자들도 학력이나(정규대학 이상 72.7%) 신학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차이가 없으면서도, 그들의 사역 영역에 있어서는 남성 목회자들과는 다른 형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년 전(1988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정심방사역(59.3), 어린 학생과 여성 대상 설교(17.2%), 교육(11.2%), 목사 보좌(2.9%), 상담(1.9%), 봉사 및 기타 순이었으나, 20년 후에 조사한 결과로 담임목회자(3.7%), 설교(7.4%), 심방(48.4%), 교육(27.8), 행정 및 음악사역(7.2%), 기타 상담 및 기관사역(4.5%) 등으로 종전과 큰 차이 없이 여성 목회자의 사역분야가 남성 사역자들과는 다르게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시급하고도 민감한 부분인 교역자 사례비에 있어서도 50만 원 이하(10.4%), 50~120만원 (55.6%), 120~150만원(15%), 150만 원 이상(15.6%) 등으로 나왔고, 기타 의료보험(22%), 복지혜택(교육비 지원 23%, 사택지원 33.4%)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응답 대상자의 반 정도가 1,000명 이상의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이기에 이런 정도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일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응답자 대부분이 동일한 사역을 수행함에도 남성 교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역간에도 남성 교역자와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58%가 성인설교에 배제되었고, 10%가 예전 집례예, 성인교육 및 찬양인도 등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 목회자에 대한 교인의 반응도, 남성 목회자 선호가 47% 수준인 데 비해 여성을 선호하는 비율은 6%에 불과했고 이런 경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생각하는 여성 사역자들의 목회 장애요소는 역시 사역영역 제한(15%), 교육 기회 부족(16%), 나이(9%), 남성 교역자와의 차별(8.2%), 여성 안수 불허(8%) 등으로 나타나 목회 현장에서의 여성의 한계를 많은 부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교단의 제도적 개선(46%), 여성 사역자 전문 분야 개척(40%), 남성들의 사고의 전환(32%)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런 어려움 해결의 일환으로 신학교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화 교육을 시켜 줄 것을 희망(46%)했고, 여성 목회자 교수를 채용해 줄 것(9.2%),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요구(10%)하면서 여성 교역자들에게는 인격과 영성(41.2%), 전문성(44.4%), 소명의식(12%) 면에서 상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후배들에게도 우선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고(54%),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47%)해야 여성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음을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역 현장의 현실과 앞에서 제시한 여성의 훌륭한 장  
점 요소, 적절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군선교 사역만큼 여성 목회자에게  
적합한 곳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선, 군대가 여성 사역자를 대단히 필요로 하고 있고, 거의 여성 사역  
자들에 대한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 사역자들에  
비해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sup>37)</sup> 젊은 장병들의 경우 어머니의 품을 떠나  
딱딱하고 메마른 군대의 계급사회 안에서, 거친 환경과 문화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다가  
갈 때 그들의 마음 문을 열게 될 가능성이 절대적이라 생각된다. 물론 남  
성 중심의 군대 사회에도 남존여비의 부정적 의식이 이들에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젊은 장병들의 삶의 정황상 모성적·보호적 본능이 이런 남  
성 선호의 부정적 의식들을 압도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군에 오기 전 기  
독교에 무관심했거나, 반기독교적 정서를 강하게 가졌던 젊은이들도, 여  
성 사역자 앞에서는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고, 복음을 향해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다.

또한 군선교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문이  
꼭 막힌 오늘의 선교 현실에서 그래도 자의든 타의든 복음의 자리에 나아  
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통로가 군대이기에 군  
선교는 너무나 중요하며, 더욱이 우리 민족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37) 군대 진중교회에서 남성과 여성 사역자에 대한 선호도를 객관성 있게 퍼센트(%)로 분석하기  
는 쉽지 않다. 여성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의 장병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 목회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남성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 장병들에게 남성과 여성 목  
회자 중 어느 쪽을 원하는가를 질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남성 목회자에게서 장점으  
로 찾을 수 있는 목회자의 권위, 목회자에 대한 통념(목사는 남자)상 이질감이 없다는 것, 그  
리고 여성보다는 남성 목사의 설교가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 등인 데 반해,  
여성 목회자의 사랑, 온유, 겸손, 부드럽고 섬세함, 특히 병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조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장병들로서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남성이 갖는 선호요인들을  
능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 두 형태의 목회자가 진중교회의 문을 들어설  
때 인사하며 반색하는 표정에서부터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독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군선교만큼 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역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복음의 열정과 사명감과 영성이 남자 사역자에 비해 비교적 탁  
월한 여성 목회자들, 그러면서 민간 목회지를 찾는 데 남성 목회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 목회자들이 찾아야 할 제1순  
위, 최적의 목회지가 군선교가 아닌가 생각된다.

## (2)평신도 여성 사역자를 진중교회 '세례장병' 양육 사역에 활용

군선교 사역 50여 년 동안 나름대로 많은 선교 성과를 이룩하였는 바,  
1천여 동의 진중교회를 건축하여 전·후방 산과 바다, 하늘 곳곳에서 장  
병들이 주 예수님의 성호를 소리 높여 외치게 하는 감동의 역사가 만들어  
지고 있고, 연간 20만 명에 가까운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며, 지  
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로 헌신된 사역자들이 나름대로 군을 복음화시  
키는 사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군선교에서 아직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세례 받은 많은  
장병을 군 복무의 기간 중 제자다운 제자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 즉  
양육사역이라 생각된다. 특히, 세례 받은 신자의 70-80% 인원이 모여 있  
는 최하급 부대(대대급 이하) 진중교회에는 양육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이곳은 군의 하부기관이기에 군종목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위촉받고 현장에 찾아가 사역하는 민간 목회자들에 의해 사역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교회는 민간 목회자 이외에 헌신된 사역자도 극  
히 제한되고, 예산의 뒷받침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며, 문화사역의 혜택  
도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열악한 현장이다. 그럼에도 양육할 대상은 마치



물고기가 모여 있는 양어장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이런 민간 목회자만으로 진중교회의 많은 인원(대대 진중교회  
의 경우 양육해야 할 대상이 평균 2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됨)의 양육  
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상 너무 무리한 사역일 수밖에 없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양육의 문제는 군대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감  
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역이며,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이 사역이 군대  
가 맡은 사역이라기보다는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할 사역이라는 사실이  
다. 그러기에 대대급 양육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고 지원할 것인가는 한국 교회의 중요한 과업 중의 과업이라고 생  
각되며, 이를 위한 많은 기도와 고민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전략 중 하나가 이 논문에서 제시하려는 민간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를 이곳 양육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양  
육 여건이 열악한 대대급 진중교회 목회자를 도와 ‘세례장병’ 양육분야  
를 이들이 맡아 줄 수만 있다면, 양육자 부족, 각종 자원의 제한, 그리고  
정서적으로 무미건조하기 쉬운 군선교 현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대대급 수준에 맞는 양육 모델(일부 진중교회에서 이미 개발하  
여 시행중인 모델)과 연계하여, 한국 교회 차원에서 대대 진중교회별 1명  
정도의 여성 양육 사역자를 파송하여 대대 교회 목회자를 돕는 전략을 시  
행한다면, Vision 2020운동의 미흡한 분야를 보완하는 괄목할 만한 사역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sup>38)</sup>

38) 군대 내에 설립된 진중교회가 1000여 동이고 이중 대대급 이하 진중교회가 70% 정도라고  
할 때 최대 700명 정도의 양육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해외 선교를 가장 중요한 사  
역으로 인식하여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으로 볼 때, 군  
의 양육사역이 한국교회의 주요한 선교사역 과제로 인식되지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년 5월 초에 출간될 예정인 “21  
세기 한국 교회 부흥의 새로운 돌파구 《군선교》”를 참조하라.

### (3) 대대급 진중교회 양육 모델<sup>39)</sup>

#### ① 대대급 진중교회 양육사역 현실

##### ㉠ 다수 인원이 집결된 군부대 최말단 현장인 대대급 교회 사역

- 대상 인원(사병 위주) 약 400명 중 군

세례자 200여 명 (50~60%)

▽

그리스도인이지만 전원 양육받지 못한 상태

##### ㉡ 대대급 목회 : 군목 미배치—민간 목회자 담당(지원)—인적/물적 자원 빈약

##### ㉢ 군 복무 기간(1.5-2년) 양육 제한으로 제자 결실을 대단히 저조

- ※ 군 세례 받은 200여 명 체계적 양육 절실

#### ② 양육사역 계획(대대급 모델)

##### ㉠ 목표 : 세례 받은 자에 걸맞은 신자로 양육, 군 세례 받은 장병 전 원을 정체성 있는 신자로 양육—사회로 재파송

##### ㉡ 기본 개념 : 부대 배치 직후 단기간(6주) 중점 양육

- 6주 : 부대 기초 적응 기간(불안 / 부적응 최고조—복음 수용  
최적기)

- 후속 양육 : 정상적인 성경 공부 / QT, 연중 지속 신자 관리

##### ㉢ 양육 방법(2단계 적용)

—1단계(2주 - 4회 : 주일 낮 2시간 / 수요 저녁 45분)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주님 영접 고백 / 최초 신앙고백문 자  
필 작성

39) 본 내용은 육군 백마기드온교회(대대 진중교회—김창제 목사 시무)에서 2008년 3월부터 시  
행하고 있는 대대급 진중교회 양육 모델이며, 자료 제공에 감사드린다.

- 제자훈련 기초 단계 교재 활용

—2단계(4주 - 8회 : 주일 낮 2시간 / 수요 저녁 45분)

- 신앙생활(교회 활동) 기초 이해 / 습득

※ 기도, 찬양, 성경 읽기, 예배 등(코이노니아 식 진행)

—3단계(8주 - 8회 : 주일 낮 2시간)

- 성경 공부 / Q.T

※ 1, 2단계 수료한 장병에게 심도 있게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차후 단계

- 간접 양육 계속 : 민간 교회 사랑의 편지 연결 유도
- 신앙생활 상태 추적, 신앙 지도 및 지속 관리(초청 행사 등)

#### ㉔ 결과적 상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감, 소속감으로 진중교회 지속 출석

—군 생활 기간 중 신앙 상태 유지 및 성장—교회 봉사 참여

—전역 시 신앙생활 계속 약속—출석할 민간 교회와 연결

#### ㉕ 지원 사항(민간교회로부터 대대급 진중교회에)

—1단계 양육사역 전담 사역자 1명 사역 현장 파송(핵심 사역—양육 성패 좌우)

※ 파송 조건 : 제자훈련 이수한 초신자 전문 사역 유경험자

군선교 사역 희망자(가능한 여성 사역자)

군부대 진중교회 특성상 무보수 사역 수용 가능

자

—문화 사역 지원(찬양 사역 / 기타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 2) 우수 여성 목회자의 군선교 사역 참여 유도 방안

군선교 사역의 조건을 구비시키고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우선 여성 목회자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현실적으로 절박한 여성 목사 안수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논의되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희망하며(여성 목사 안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단), 이와 함께 앞에서 제시한 여성 군종 장교 배출 문제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성이 제도권 내에서 군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되며, 이렇게 해야 군선교에도 새로운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대에 군선교를 위해 여성 목회자가 꼭 필요하며, 군선교 현장이 여성 목회자의 사역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임지라는 사실과,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배려가 마련된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교단) 차원에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여성 목회자(후보생)들로 하여금 군선교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군선교 사역을 담당할 목회자의 보수를 포함한 선교 후원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 또한 사역 동기를 부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3) 군선교 사역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조치

만일 군선교 사역에 여성 사역자를 활용하는 전략을 택한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군선교 사역과 관련한 사역자 양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의 군종 목사 배출제도 하에서는 각 교단에서 군목시험에 합격한

군목 후보생이 해당 교단 신학교 신대원 졸업 시까지 군선교에 관한 교육의 기회가 전무한 상태이다. 일부 이루어진다 해도, 지금과 같이 임관 후 형식적인 OJT(단기 직무 교육) 교육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단별로는 대상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별도의 군선교 관련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으나, 이를 국방부, 군종목사단, 군선교연합회가 정책적으로 제도화시켜 군목 임관 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방안은 군선교를 이해시키기 위한 신학교(대학원) 과정에서 군선교 과목을 수강시키는 일이다. 특히 여성 신학생을 군선교에 활용하는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군선교 과목 개설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성 신학교 학부생들에게 군선교 개론의 수준으로 군선교의 기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 신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군선교의 신학, 역사, 군선교 전략 부분을 심도 깊게 가르치고, 여기에 추가하여 군선교 현장을 탐방하여 선교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선교를 담당할 여성 사역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군선교 사역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군선교 관련 정보를 제공 및 교환하게 하며 사역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 결론

우리는 지금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

로 그들의 삶 자체가 제약을 받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성들이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제 자원 중 가장 효율성이 높은 인적 자원을 극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군대에서도 갈수록 첨단화되고 두뇌를 필요로 하는 군의 미래 발전추세에 맞춰 여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군선교 차원에서도 군선교가 이 시대 국내 선교의 활력을 불어넣을 거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인식 하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군선교에 귀한 결실을 이루어 왔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민족복음화 달성을 위해 우리에게 더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최대한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동시에 잘 양육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있는 제자로 만들어 내라는 명령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되고 나아가 이 민족을 깊어지고 나갈 복음의 일꾼이요,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 같은 제자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일 것이 분명하다. 이 군선교란 한국 군대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절호의 기회가 시한부임을 인식하는 한국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 논고에서 군선교를 향해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였는 바, 첫째, 군선교 현장에 여성 사역자를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선교 결실의 물꼬를 터는 진중교회 양육 사역에 진력하자는 것이며, 둘째 신학대학원의 1/3을 점유하고 있는 여성 신학생으로 하여금 사역지가 없어 목회지가 아닌 곳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

는 차원에서 이들을 군선교 현장에 적극 투입하자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여성 목회자를 진중교회 목회 사역에 최대한 참여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민간 교회 평신도 여성 사역자로 하여금 진중교회 목회자를 돕는 양육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문제가 한국 교회 차원에서 군선교 전략으로 가시화되고 제도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여성 사역자에 대한 선교적 동기가 유발되어 사명감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여성 특유의 장점인 모성애적 보호본능과 섬세함, 포용력 등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거칠고 메마른 진중교회의 현장을 어루만져 젊은 장병 신자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알곡신자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의 전략적 제안이 시행되는 여러 분야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선교적 도전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군선교 현장에 보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선교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선교 전략인 Vision 2020운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질적인 선교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